

이 란

##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 · 재정 · 실업문제 악화 전망

2000년에 이어 2001년도 상반기에도 호조를 보였던 이란 경제는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2001년도 전체의 실질GDP성장률은 전년도의 6.1%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4.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2년<sup>1)</sup> 경제성장은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된 3.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정부는 2000년 2월에 개시된 제3차 경제·사회·문화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2002년도의 실질GDP성장률 목표를 6.5%로 고수하고 있다. 이 성장 목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2002년도 예산은 2월중 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란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성장률과 함께 달러당 7,700리알의 환율, 배럴당 19달러의 석유가격 등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Tahmasb Mazaheri 경제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sup>2)</sup>, 오는 3월 21일부터 단일환율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리알 환율은 외환보유액, 재정수입, 외환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공급의 82%, 수요의 75%를 차지하는 현실 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환율이 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sup>3)</sup> 따라서 현재 이란의 이중환율시스템에서 시장환율로 간주되어 온 증권거래소의 외화증서 거래환율이 달러당 7,900~8,000리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란 정부는 예산환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석유수출 수입, 6~9% 감소 전망

이란 경제를 좌우하는 석유수출 수입(收

1) 회계연도(2002. 3. 21~2003. 3. 20) 기준임.

2) Iran Daily News, 2002. 1. 5자 보도.

3) Iran Daily News, 2002. 1. 1자 보도.

〈표 1〉

이란의 석유 생산 및 수출 감축

단위: 일일 천 배럴

	공식 발표 <sup>4)</sup>			감축후 상반기중 실제 물량 추정 <sup>2)</sup>
	2001. 12	감축량	2002. 1	
생산량(쿼터)	3,406	220	3,186	3,286
수출량	2,050	200	1,850	1,950

주: 1. Iran Daily News, 2002. 1. 5.  
2. 쿼터 초과 일일 10만 배럴 가정  
자료: 필자 작성.

入)은 2001년 상반기의 석유가격 호조로 인해 2001년 3/4분기에 2001년도 예산상의 목표치인 128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Mohsen Nourbaksh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4/4분기(2001. 12. 22~2002. 3. 20) 석유수출 수입은 잉여외환비축기금(Surplus Forex Reserve Fund)으로 전입될 것이며, 그 금액은 25억~3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sup>4)</sup>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타결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에 따라 이란 정부도 생산량은 일산 22만 배럴, 수출량은 20만 배럴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입자들에게도 통보하였다.<sup>5)</sup> 그러나 감산이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예산가격을 기준으로 한 2002년도 석유수출 수입은 감산 뒤의 공식 쿼터에 따른 수출로는 135억 달러, 쿼터 초과 생산까지 감안한 수출로도 142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상 149억 달

리로 계획된 석유수출 수입<sup>6)</sup>을 감안할 때, 약 7억~14억 달러의 재정수입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석유수출 수입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석유수출국들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감산 조치가 다시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어, 6개월 후에는 석유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쿼터를 초과해 생산해온 관행<sup>7)</sup>으로 미루어 이번 감산기간 중에도 쿼터 초과가 부분적으로 계속됨으로써 감산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셋째, 올해 하반기 이후 기대되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앞의 두 가지 석유가격 하락 요인이 상쇄된다 해도, 2002년 중 석유가격이 평균 19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일 205만 배럴 수출 기준으로 석유가격이 1달러 변화할 때, 이

4) Iran Daily News, 2002. 1. 6자 보도.

5) 수출가격이 낮은 캐나다, 우루과이, 브라질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3국에 대한 수출량은 합하여 일산 5만~10만 배럴 수준이었음.

6) 국가관리계획기구 장관 Mohammad Sattarifar (Iran Daily News, 2002.1.5), 국영이란석유회사 사장 대행 Hojjatollah Ghanimifard(Iran Daily News, 2002.1.10)이 발표한 수치이며, 이는 일일 215만 배럴의 수출량에 해당됨.

7) 이란의 산유량 쿼터 초과는 2001년 1~10월중 일평균 18만 배럴로 추정됨(EIU, Country Report, 2001. 12).

〈표 2〉 2002년도 석유수출 수입 전망

	석유수출 수입	
	일일 2,150천 배럴 기준 (예산기준 수출량)	일일 2,050천 배럴 기준 (6개월 감산 감안)
예산 유가(배럴당 19달러)	149억 달러	142억 달러
예산 전망(배럴당 18.5달러) <sup>8)</sup>	145억 달러	138억 달러

주: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1. 12.

자료: 필자 작성.

란의 석유수출 수입은 연간 7억 5,000만 달러의 차이가 난다는 점이 그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이란 정부는 국내시장에 등유와 휘발유를 각각 배럴당 2달러 및 9달러에 공급하는 등, 국제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20~25달러에 이르는 석유제품을 국내소비용으로는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2002년에도 이같은 가격보조 비용은 1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앞으로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서 가격보조를 시장가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 실업문제, 갈수록 심각해져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차 5개년 계획의 고용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관리계획기구의 Jafar Ebadi 차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sup>8)</sup>, 2001년 및 2002년도의 신규고용 창출 목표는 각각 76만 개이나, 지난해의 실적은 약 45만 개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도 약 57만 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5세~64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약 350만 명이 실직상태에 있는 이란은 향후 4년간 550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매년 15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하고 실업률도 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sup>9)</sup> 특히, 대학 졸업자의 80%가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경제개혁 지속과 공공부문 민영화 진전은 고학력자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고용감소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실업률과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비중은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2000년 총선에서 개혁파가 의회를 장악한 것도 사회 전반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 정부도 잉여외환비축기금 중 20억 달러를 고용창출에 투입하는 등 실업문제 해결에 부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민간기업 부문의 성장과 외국인투자 증가가 실업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康 峻 秀】

8) Iran Daily News, 2002. 1. 1자 보도.

9) Iran Daily News, 2002. 1. 1자 보도.